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지원 요청

서 교육감, 교육부장관에 건의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장 찾아 디지털 기기 살펴보기도

서거석 교육감은 제20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가 개막한 서울 코엑스인근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등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미래교육캠퍼스는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전라중학교 부지에 설립하려는 서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미래교육 핵심시설이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전주교육지원청 신속·이전 조건으로 전라중 이전을 승인받았으나, 전주의 중심 지역에 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보다는 미래교육 체험 시설을 건립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계획을 변경했다.

그 결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이주호 장관에게 미래교육캠퍼스가 차질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에코시티 초등학교와 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장에서 박람회장을 찾은 서거석 교육감이 디지털 기기를 살펴보고 있다.

등학교 군산 디오션시티 중학교 등 인구 밀집 지역 내 학교 신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역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다.

한편 이날 박람회장을 찾은 서 교육감은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와 전자철관 등 디지털 기기를 살펴봤다. 서 교육감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등

우리 지역 곳곳에 산적해 있는 교육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전북교육 대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류덕산 교수, SW공학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선임

전북대학교는 류덕산 교수(소프트웨어공학과)가 한국 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 공학 소사이어티와 한국정보처리학회 소프트웨어 공학연구회에서 주관하는 '2023 한국소프트웨어공학 학술대회(KSE 2023)' 조직위원장에 선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학술대회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이라는 주제로 2월 8~10일까지 3일간 강원도 휘닉스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린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 다양한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 동향을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소프트웨어공학 학술대회다.

한편 류 교수는 소프트웨어공학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SE4AI, AI4SE, 인공지능기반 소프트웨어분석, 소프트웨어결함예측, 소프트웨어신뢰성공학, 소프트웨어메트릭스,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등이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교직원 워크숍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12~13일 1박 2일간 진도 솔비치에서 2022학년도 교직원 동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3년 여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 정상모 총장을 비롯해 12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학의 미션과 비전을 논의하고 토론함으로써 어려운 대학환경의 맥락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통합의 마인드로 모든 교직원들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 관심도를 고취시키면 좋겠다"라고 했다.

정상모 총장은 "이번 교직원 워크숍은 희망과 도약의 명제로 교직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자세 견지, 지속가능한 대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안정된 재정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외적 활동 강화, 미래가 있는 대학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등 교육의 질과 대학 운영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새 지평을 열자"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길"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시상식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위원장 두재균)가 주최·주관하는 '제4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시상식이 지난 11일 전북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수상자는 박현성 익산고 교사, 김예선 임실관초 교사, 배철환 전북기계공고 교사, 조민정 군산육구초 교사, 이대혁 익산삼기초 교사, 홍주완 전주사신초 교사 등 총 6명이다.

12일 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30인 이상 추천을 받아, 활동 내용과 현장 조사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두재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음이 필요하듯, 모든 모두가 교육의 주제로서 교육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길 바란다"며 "이 상을 통해 교직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제4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시상식이 지난 11일 전북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원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학생과 학부모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해 가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1회부터 4회까지 공동 후원한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과 전주현대대(대표 오상현), 그리고 2회에서 4회까지 후원한 레인보우포켓(대표 이문순) 등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한 제3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수고한 신용호씨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시상식을 주최한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는 두재균 위원장, 이강선 공동집행위원장, 서두석 사무총장 등 30여명의 시민공동체로 구성됐다. 제4회는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김병근)와 공동 주관했다. /정은성 기자

특수교사 교육역량 강화 앞장

도교육청, 60여명 대상 교육과정 직무연수 진행 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13일까지 특수교사 60여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수는 교육과정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을 신장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분절되지 않고 연계된 교육과정을 고민하기 위해 모든 학급이 함께 설계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핵심요원을 양성해 이들을 연구회, 각 지역별 동아리, 찾아가는 실행연수 컨설팅단으로 활동하게 할 계획이다.

정혜영 교육혁신과장은 "이번 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육과정 핵심 교원으로 향후 컨설팅 등을 하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심화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오늘 신규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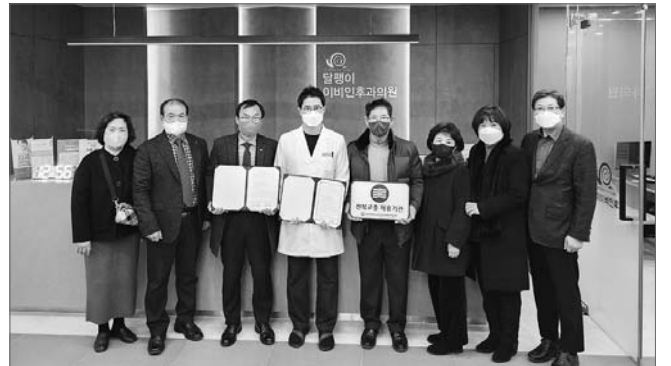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13일 창조미래 회의실에서 신규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 감사담당공무원들에게 감사법 교육을 통해 자체감사 기구의 감사업무 수행능력을 키우고, 감사담당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부서에 발령받은 신규 감사담당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청렴교육을 시작으로 △공공감사의 이해 및 감사자의 자세 △나이스 K-에듀퍼인(클린재정) 등 활용법 △공·사립고 재무감사 지적 사항 안내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절차 안내 등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1월 한 달간 멘토링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 감사담당공무원과 선배 감사담당공무원 간 멘토-멘티를 정해 감사법 공유 및 고충 상담을 진행한다.

노경숙 감사관 직무대리는 "이번 교육은 신규 감사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높여 감사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총은 12일 교총 회원들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달팽이이비인후과 의원과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가족 복지증진 도움 기대"

전북교총, 군산달팽이이비인후과와 협약 체결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2일 교총 회원들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달팽이이비인후과의원(대표원장 김창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교총에서 이기종 회장을 비롯해 오한섭 사무총장, 송경희 군산교총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달팽이이비인후과의원에서는 김창주 대표원장, 정은경 간호실장 등 관계 직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협약으로 교총회원과 가족은 비급여 항목(청각 장애진단, 영양수액, 비급여 백신(폐렴구균, 대상포진, 자궁경부암)) 20% 할인과 리사운드 보청기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기종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가족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의료 지원 확대 및 편의 제공 건강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의료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복지혜택 발굴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주 대표원장은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청각사와 평형사가 상주한 우리 병원은 어지럼증 및 코막힘 환자 뿐만 아니라 소아 알레르기 비염, 부비동염(축농증), 중이염, 편도아데노이드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며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2023학년도 등록금 동결

"코로나19·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3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12일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 4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주대는 12년 연속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을 이어오면서, 가계 부담을 덜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했다.

한편 전주대 등록금은 학기당 인문 사회계열 302만원, 공학예능계열 394

만5,000원으로 이는 2015학년도에 확정된 금액이다.

홍성덕 기획처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게 됐다"며, "다양한 국고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외부 사업 수주와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금전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11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아디스아바바과학기술대학교와 글로벌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품과학 분야 중심 연구 협력 강화

전주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과과대와 협약

전주대학교(박진배 총장)는 지난 11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아디스아바바과학기술대학교(총장 Dereje Engida Woldemichael)와 글로벌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진배 총장은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분야를 새롭게 선도하는 아디스아바과학기술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전주대의 글로벌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학 및 국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로 이뤄졌다.

한편, 아디스아바과학기술대학교(Addis Ababa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는 2011년에 개교해 현재 2,2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박진배 총장은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분야를 새롭게 선도하는 아디스아바과학기술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전주대의 글로벌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학 및 국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